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의 의료인 연계 및 한방의료 현황 조사

제인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장석우, 허수정, 조현주

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State of Doctors' Linkage and Oriental Medical Treatment at All Postpartum Care Center in Seoul

Suk-Woo Jang, Su-Jeong Heo, Hyun-Ju Cho
Dept. of OB & GY, Je-In Oriental Hospit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ll postpartum care center in Seoul about its state of doctors' linkage and oriental medical treatment.

Methods: From May 1st 2011 to July 10th 2011, survey was done using a self-made questionnaire by phone or visit. There were 12 categories including the state of doctors' linkage in postpartum care centers, treatment form of oriental medical doctors, utilization of herbal medicine and so on.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Excel 2007 FOR WINDOWS.

Results:

1. The doctors' linkage with postpartum centers included pediatricians(96.1%), oriental medicine doctors(61.2%), and gynecologists(34.0%). Of those postpartum centers, 66% had both pediatrician and oriental medical doctor which were the vast majority.

2. Out of 70 postpartum centers providing herbal medicine, 9 of them were supplied of herbal medicine by herb sellers(not doctor). Where as, at 63 oriental medical doctors-affiliated centers, 85.7% of them had oriental medical doctors' examinations.

3. Out of 70 postpartum centers providing herbal medicine, personalized prescription amounted to 35(50.0%), same prescriptions amounted to 34(48.6%), and 1(1.4%) refused to answer.

4. Out of all the patients that received explanation about the effects of herbal medicine, 62.9% had them explained by oriental medical doctors.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ctively involved with postpartum care centers but problems surfaced regarding individualized prescription insufficiency and the lack of administration. In the near future, if the expertise expand in the areas of pediatrics as well as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medicine will have a more solid role in postpartum care part.

Key Words: Postpartum care, Postpartum care center, Herbal medicine, Doctors' linkage

I. 서 론

우리나라의 산후조리방법은 기존의 전통 산후조리방법이 있는 가운데 병원 분만이 보편화 되고 전문 산후조리원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자건강이 곧 사회건강의 척도'라는 인식이 널리 공감을 얻으며 산후조리가 휴식이 아닌 치료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데¹⁾,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보다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게 보고되었다²⁾.

산후조리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전문성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많은 산후조리원에서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 의료인이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고, 그 중 한의사는 산후조리 한약 처방, 침구치료, 산모대상 강의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산후조리를 주제로 한 한방 연구를 살펴보면 산후조리나 산후병에 대한 인식 조사³⁻⁹⁾, 선호하는 산후조리기관 형태 연구¹⁰⁾, 산후병 치료¹¹⁻¹³⁾, 산후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14,15)} 등 한방진료의 영역을 넓히거나 한방치료 영역의 기초자료를 확립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산후조리원의 전문 의료인 연계 현황이나 실시되고 있는 한방 의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총 108개 중 설문에 응답한 103개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산후조리원 의료인 연계 현황과 한방 의료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

여 향후 산후조리에 한의사의 기여도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인한방병원 한방부인과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전체 108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산후조리원의 명단은 서울 소재 25개 구의 보건소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전체 108개의 산후조리원 중 응답을 거부한 5개를 제외하고 103개의 산후조리원을 실제 연구에 참여 시켰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적합한 기존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설문지(별첨)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시 설문조사의 내용 및 목적 등을 설명한 후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지는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항목은 산후조리원 연계 의료인 현황, 한의사의 진료 형태, 산후조리한약의 사용 여부와 현황 조사,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실태 및 투약 지도, 산후조리원에서 기대하는 한의사의 참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작성은 1인의 조사원에 의해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조리원 운영자에 의해 답변 되었다. 직접방문 시 설문을 거부한 곳은 추후 전화로 설문 협조를 요청하여 작성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 2007 FOR WINDOWS 버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Ⅲ. 결 과

1. 산후조리원 의료인 연계 현황

연계의료인은 최소 0명에서 최대 3명이었다. 103개의 산후조리원 중 소아과 의사와 연계된 곳이 99개 (96.1%)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연계는 63개 (61.2%), 산

부인과 의사 연계 35개 (34%), 기타 의사 6개 (5.8%)로 조사되었다.

2명의 연계의료인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중 소아과 의사, 한의사 조합이 4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를 차지한 3명의 연계의료인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16.6%에 해당하였고 소아과 의사, 한의사, 산부인과 의사 조합이 1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Present Condition of Doctors Associated with a Postpartum Care Center

	Kinds of Doctor	N(%)	Total N(%)
None	None	2(1.9%)	2(1.9%)
One Doctor	PD	14(13.6%)	15(15.5%)
	OMD	2(1.9%)	
Two Doctors	PD, OMD	46(44.6%)	69(66.0%)
	PD, OB&GY	21(20.4%)	
	PD, etc.	1(1.0%)	
Three Doctors	PD, OMD, OB&GY	12(11.7%)	17(16.6%)
	PD, OMD, OS	3(2.9%)	
	PD, OB&GY, FM	1(1.0%)	
	PD, OB&GY, DR	1(1.0%)	
Total		103(100.0%)	103(100.0%)

- * PD: Pediatrician
- * OS: Orthopedist
- * DR: Dermatologist
- * OMD : Oriental Medical Doctor
- * OB&GY : Obstetrician, Gynecologist
- * FM : Family Medical Doctor

2. 한의사의 진료 형태

1) 산후조리 한약 제공여부 및 제공기관

103개 중 70개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한약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산모에게 공급되었다. 이중 61개는 한의원과 연계되어 한약 처방을 받았으며, 9개는 한약업사에게 한약을 공급받고 있었다 (Fig. 1). 2개의 한의원에서는 진찰을 하지만 산후 조리 한약은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산후조리한약을 지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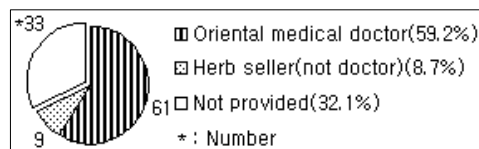


Fig. 1. Herbal Medicine Provider and Given or Not.

2) 한의사의 진료 형태

한 의사 연계의 63개 산후조리원 중 산모의 진찰을 하는 곳은 54개(85.7%)였고 이 중 13개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진찰과 함께 산후조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었다. 한 의사 연계 산후조리원 중 진찰 없이 한약공급만 받는 곳은 9개(14.3%)였다(Fig. 2). 진찰 횟수는 주 1회가 27개(50.0%), 주 2회 18개(33.3%), 주 3회 2개(3.7%), 2주 1회 7개(13.0%)로 조사되었다(Fig. 3).

진찰은 조리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행되었고, 조리원내 진찰에서는 개별진찰 38개, 선별진찰 10개, 한의원내 진찰에서는 개별진찰 1개, 선별진찰 5개로 나타났다(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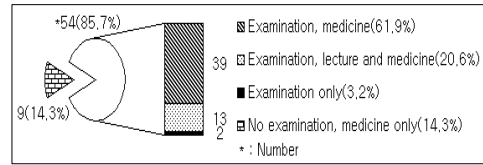


Fig. 2. Participation Form of Oriental Medical Do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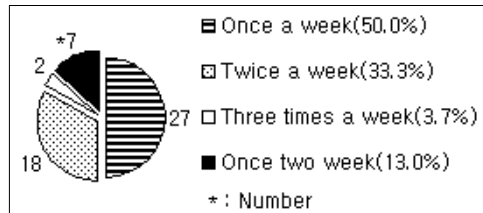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Examination by Oriental Medical Doctor.

Table 2. Subjects and Place of Examination by Oriental Medical Doctor

Examination Place	Subjects of Examination	N (%)	Total N (%)
Postpartum Care Center	All Postpartum Women	38(70.4%)	48(88.9%)
	Inquired Postpartum Women	10(18.5%)	
Oriental Medical Clinic	All Postpartum Women	1(1.9%)	6(11.1%)
	Inquired Postpartum Women	5(9.2%)	
Total		54(100.0%)	54(100.0%)

3.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실태 및 투약 지도

1) 산후조리한약의 처방 형태

산후조리한약을 복용하는 70곳 중 개별 처방이 35개(50.0%), 모든 산모 처방 동일 34개(48.6%), 응답 거부 1개(1.4%)로 나타났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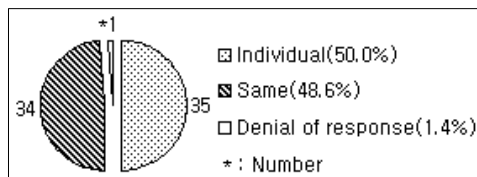


Fig. 4. Herbal Medicine Prescribing Form.

2)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방법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방법은 운영자가 정해진 시간에 나눠주는 경우가 41개(58.6%), 산모가 자율 복용하는 경우는 29개(41.4%)로 조사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나눠 주는 경우 1일 2회 시간에 맞춰 나눠주는 경우가 38개(54.3%), 지시된 개별 복용법에 맞게 나눠 주는 경우 3개(4.3%)로 나타났고, 자율 복용인 경우 공공장소에 비치된 약을 횡수나 복용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용하는 경우가 18개(25.7%), 개인이 보관하며 1일 2회 복용하는 경우 11개(15.7%)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erbal Medicine Administration Method

Administration Method		N (%)	Total N (%)
Administration at Scheduled Time	Twice A Day	38(54.3%)	41(58.6%)
	Administration at Doctor's Ordered Time	3(4.3%)	
Self Administration	Self Help Medicine	18(25.7%)	29(41.4%)
	Kept by Patients, Taken Twice A Day	11(15.7%)	
Total		70(100.0%)	70(100.0%)

3)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설명 실태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시 한약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한의사가 설명하는 경우가 44개(62.9%), 조리원 운영자가 설명하는 경우 19개(27.1%), 유인물을 사용하는 경우 2개(2.9%),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5개(7.1%)로 조사되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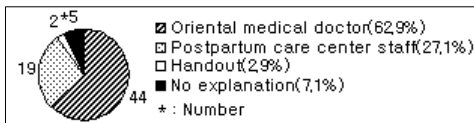


Fig. 5. The Method of Description for the Effects of Herbal Medicine.

4) 산후조리한약의 효과에 대한 이해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이해하고 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산후조리한약의 효과는 어혈제거효과가 95.7%로 가장 많았고, 부종제거 72.9%, 기력보강 25.7% 순으로 나타났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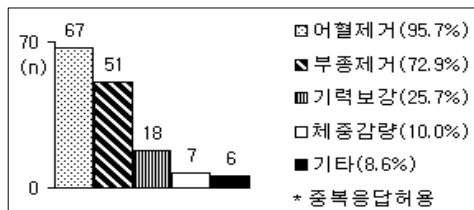


Fig. 6.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about What the Administration of Postpartum Centers Understand.

† 기타 :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효과 3, 순환이 잘되게 하는 효과 2, 변비 제거 효과 1

4.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기대하는 한의사의 참여 형태

103개 중 58개의 산후조리원에서만 응답을 하였으며, 한방 산후조리법에 대한 강의와 산후조리한약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Type of Involvement Postpartum Centers Expect from Oriental Medical doctors

참여 형태	N (%)
한방 산후조리법 강의	43 (74.1%)
산후조리한약에 대한 효과 설명	32 (55.2%)
입소기간 중 산모의 한방치료	14 (24.1%)
한방소아과에 대한 강의	11 (19.0%)
유방 관리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	6 (10.3%)

* 중복응답허용

IV. 고 찰

'산후조리'는 출산 이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 활동, 거처 등을 적절하게 돌보아 줌으로써 임신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6,17}.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문화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주로 가족에 의한 전통적 산후 돌봄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문 산후조리기관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신생아 관리 뿐 아니라 산모들도 적극적으로 몸을 회복하여 임신 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으며, 55.1%에서 보다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다²⁾.

산후조리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전문성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많은 산후조리원에서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 의료인이 연계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한의사는 산후조리한약 처방, 침구치료, 산모대상 강의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인의 연계 실태에서 소아과 의사와 연계된 곳은 96.1%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연계 63개(61.2%), 산부인과 의사 연계 35개(34.0%), 기타 의사 6개(5.8%)로 조사되었다. 산후조리원의 의료인 연계는 신생아와 산모, 두 가지 대상에서 이루어진다. 신생아의 경우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쉽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다. 2001년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며²⁾ 사회적으로 의료진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신생아 관리의 타당성과 어우러져 높은 소아과 의사 연계율로 이어졌다. 산모들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임신 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러한 산모들의 욕구가 한의사 연계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산욕기에 대하여 서양의 학에서는 '분만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낫고 자궁이 평상시 상태가 되며 신체의 각 기관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¹⁸⁾, 대부분의 정상 분만이나 제왕절개술의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의료적인 처치가 없어도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⁹⁾. 반면 한의학에서는 산욕기를 분만으로 인한 疲勞와 失血로 氣血이 虛弱하고 臟腑가 虛損되며, 이로 인해 風寒邪가 침범하기 쉽고, 惡露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순환장애로 瘀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정의하고 있으며²⁰⁾. 《婦人大全良方》에서는 산후 1개월 이내, 산후 100일 이내에 금기를 정하고 금기를 범하면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여 산후 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과 예후를 밝혀²¹⁾, 산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기능 장애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방적 프로그램이 산모의 욕구에 합치되어 한의사와의 연계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와 연계를 실시하는 63개의 산후조리원 중 산모의 진찰을 실시하는 곳은 54개(85.7%)였다. 산모가 직접 연계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2개의 산후조리원의 경우 진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13개(20.6%)의 산후조리원에서는 한의사 진찰 뿐 아니라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으나 이에 반해 9개

(14.3%)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한의사가 진찰 없이 한약만 보내주었고 연계된 한의원 중 2곳은 진찰을 하지만 산후 조리 한약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진찰을 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진찰 횟수는 주 1회가 27개(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2회는 18개(33.3%), 주 3회는 2개(3.7%), 주 4회는 7개(13.0%)로 나타났다. 진찰 형태로는 산후조리원에서 모든 산모를 진찰한 경우가 38개(70.4%) 한의원에서 모든 산모를 진찰한 경우가 1개(1.9%)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요청한 산모에 한해 진찰하였다.

산후조리한약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70개 중 61개는 한의원과 연계되어 한약 처방을 받았으며 나머지 산후조리한약이 공급되는 9곳은 한약업사에게 한약을 받고 있었다. 한약업사의 한약조제행위는 의료법 제 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 상 불법에 해당하며, 한의사가 연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의사가 별도의 진찰 없이 산후조리한약을 보내주는 형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법적 문제 소지에 앞서 정확한 한약 처방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리원과 한의원의 경제적 이익 혹은 편의를 위한 이런 실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한약의 처방 형태를 보면 산후조리한약을 공급하는 70곳 중 개별 처방이 35개(50.0%), 모든 산모 처방 동일이 34개(48.6%) 응답 거부 1개(1.4%)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산모의 개별진찰을 실시하나 같은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4개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산모들을 개별진찰을 하지 않고 같은 처방을 할 경우

개인별 부작용이 우려되며 향후 한의사의 산후관리에 대한 의료적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방법은 운영자가 정해진 시간에 나눠주는 형태가 41개(58.6%) 산모가 자율적 복용하는 경우가 29개(41.4%)로 조사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나눠 주는 경우는 1일2회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경우가 38개(54.3%), 개별 복용법에 맞게 나눠 주는 경우 3개(4.3%)로 나타났고 자율적 복용의 경우 공공장소에 비치된 약을 횟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산모의 선택에 따라 복용하는 경우가 18개(25.7%), 개인이 보관하며 1일 2회 복용하는 경우 11개(15.7%)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5.7%에 해당하는 비치된 약을 자율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한약의 효과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투약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한방치료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부작용 등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약을 처방한 의사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 개인 보관하여 1일 2회 복용하는 15.7%의 경우는 일반적인 외래환자의 투약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전문적인 산후조리기관에서의 투약임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한의원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인 협력 업체로 실제 운영되는 내용을 지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보다 개선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사실이다.

투약되는 한약의 효과 설명 부분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62.9%로 나타났다. 진찰을 하는 곳이 85.7%임을 감안할 때 실제 산후조리원 진찰을 한 경우에도 산후조리한약의 효과를 직접 설

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산후조리한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7.1%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기대하는 한의사 참여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방 산후조리법에 대한 강의와 산후조리한약 효과에 대한 설명이 높은 기대를 나타내어 실제 산후조리한약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한방 산후조리법이나 산후조리한약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이해하고 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산후조리한약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어혈제거효과, 부종제거, 기력보강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는데 산모 개인의 상태나 출산 후 시기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한의사의 정확한 효과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전반적인 한방 산후조리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산후조리원 운영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실제 산모가 경험하고 느끼는 한방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조리원 운영자들이 의도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걸러내지 못한 설문지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전수(全數) 조사를 통한 한방 의료 현황 파악을 시도한 최초의 보고이며,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개별 진찰, 개별 처방, 한의사의 정확한 투약지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인과 소아과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접근한다면 향후 산후조리 부분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제인한방병원 한방부인과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전체 108개 중 설문에 응답한 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후조리원 의료인 연계율은 소아과 의사 96.1%, 한의사 61.2%, 산부인과 의사 34.0%로 나타나며, 산후조리원의 66%가 연계의료인이 2명이었으며 그 중 소아과 의사, 한의사 조합이 가장 많았다.
2. 한약이 투여되는 70곳의 조리원 중 9개는 한의원이 아닌 한약업사에게 한약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한의사 연계 63개의 산후조리원에서는 85.7%가 한의사 진찰이 시행되었으나 이중 진찰 없이 약만 보내주는 곳이 9개가 있었다.
3. 산후조리한약이 공급되는 70곳 중 개별 처방이 35개(50.0%), 모든 산모 처방 동일이 34개(48.6%) 응답 거부 1개(1.4%)로 나타났다.
4. 산후조리한약의 투약 시 한약의 효과에 대해 한의사가 설명하는 경우는 62.9%였다.

향후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인과 소아과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산후조리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투 고 일 : 2011년 10월 28일
- 심 사 일 : 2011년 11월 01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07일

참고문헌

1. 김소연, 조홍윤, 손희천. 산후조리에 대한 전통, 양방, 한방적 비교와 한방 산후조리원의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1;5(1):199-231.
2. 보건복지가족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가격 실태조사. 2009;52-3.
3. 오승희. 산후관리 인식도와 산후풍의 실태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2):482-500.
4. 허지원, 김성란. 산후조리의 실태 및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1):409-23.
5. 오재성 등. 산후조리에 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3):146-55.
6. 변상현 등. 산후풍의 인식 차이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6;19(4):148-58.
7. 정재중 김동일. 일부 지역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한의사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6;19(4):131-47.
8. 정재중 김동일. 일부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와 미혼여성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6;19(4):117-30.
9. 배경미, 이인선. 한국인, 재미교포, 미국인의 산후풍과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23(2):131-44.
10. 강구형, 백승희. 출산전 여성의 한방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1):376-402.
11. 박영애, 박영선, 김동철. 산후 역절풍 1례 임상경과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7;20(3):246-58.
12. 조현정 등. 분만 후 치골결합분리 환자 1례의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2):263-72.
13. 임현정, 신선미, 유동열. 산후 우울증 환자 2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9;22(2):163-71.
14. 박지영 등. 산욕 초기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들의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9;22(4):174-87.
15. 박장경 등. 협진 의뢰 산모의 한방산후조리 현황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23(1):108-23.
16. 유은광.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행위 : 산후조리 의미의 분석. 간호학탐구. 1993;2(2):37-65.
17. 유은광. 여성의 건강상태와 산후조리 경험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 1997;36(5):74-90.
18.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제4판. 서울:칼빈서적. 2007:477.
19. 황나미, 이인영. 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관리현황과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33-4.
20.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행림출판. 1992:98-108, 473-4.
21. 김영미, 최은정, 이호승. 산후풍의 치료에 관한 임상보고.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999;3(1):162-71.

<별첨자료>

산후조리원에서 시행되는 한방 의료의 형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며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산후조리원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인한방병원 한방부인과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시행되는 한방 의료의 형태 파악'을 위해 서울시 소재 108개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을 토대로 열심히 연구하여 여성의 산후조리환경과 모자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설문지 작성 동의에 O 표시한 후 상기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 해주세요(문항에 따라 중복응답을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동의()

다음은 산후조리원에 시행되는 한방 의료의 형태파악을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지에 동의하신 모든 분은 다음 질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산후조리원에 연계 한의사 혹은 의사의 종류를(중복가능) 체크해 주십시오.
1) 소아과 의사 2) 산부인과 의사 3) 기타 의사 4) 한의사

2. 만약 연계된 한방 관련 의료기관이 있다면, 그 형태는 무엇입니까?
1) 한의원 2) 한방병원 3) 한약국 4) 약국 5) 한약업사

※ 연계된 한방 의료기관이 있다면 명칭 및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

한방 의료기관의 명칭은 치료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문을 위해 문의하는 것이며 그 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한의사가 귀 산후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입니까?
1)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회진 혹은 진료를 한다.
2)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한의원(혹은 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한약만 보내준다.

- 3) 조리원 퇴소 후 연계 의료기관에 향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다.
- 4) 한의사가 산후조리에 대해 강의하고 회진 혹은 진료를 한다.
- 5)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한의사가 회진을 도는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설문입니다.
회진을 돌지 않는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7번 설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4. 한의사가 회진은 몇 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주 1회
- 2) 2주에 1회
- 3) 기타()

5. 한의사의 회진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조리원에서 산모 개별 진찰
- 2) 조리원에서 진찰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별 진찰
- 3) 진찰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의원 내원하도록 하여 진찰
- 4) 기타()

6. 한의사의 회진 시 대상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1)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회진
- 2) 산모만 회진
- 3) 기타()

7.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산후조리 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1) 포함
- 2) 불포함

포함을 선택하셨다면 아래의 추가질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포함을 선택하셨다면 8번 문항으로 가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7-1. 산후조리 한약이 포함된다면 투약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비치하여 자율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시간에 맞춰 나눠 주며 1일 2회 복용한다.
- 3) 시간에 맞춰 나눠 주며 1일 3회 복용한다.
- 4) 기타()

7-2. 산후조리 한약의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개별적으로 처방
- 2) 모든 산모의 처방 동일
- 3) 기타()

7-3. 조리원에서는 투약되고 있는 산후조리 한약이 어떤 효과라고 알고 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1) 어혈제거 2) 부종제거 3) 기력보강 4) 체중감량 5)기타()

7-4. 산후조리 한약 복용 시 산모에게 한약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 1) 한의사가 직접 설명한다.
2) 산후조리원에서 설명한다.
3)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유인물을 사용한다.
4) 설명을 하지 않는다.

8. 산후조리원에 한의사가 참여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 산후조리 한약에 대한 설명
2) 한방 산후조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3) 유방 관리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
4) 한방소아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육아 및 건강관리)
5) 산후조리 입소기간 중 필요시 개별 산모의 한방치료(침, 뜸 치료 등)
6) 기타()